

충남리포트 제79호 2013. 05. 10

## 충남지역 귀농·귀촌 실태 비교 연구

유 학 열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hyyou@cdi.re.kr)

### 목 차

< 요 약 >

- I. 머리말
- II. 귀농·귀촌 준비 실태
- III. 귀농·귀촌 정착 실태
- IV. 귀농·귀촌인 영농 실태
- V. 귀농·귀촌인 사회적 관계 실태



## 〈요 약〉

- 본稿에서는 최근 충남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들이 어떠한 준비 과정을 통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를 귀농인과 귀촌인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 충남지역 귀농·귀촌인들의 이주 前 거주지역(轉出地)을 살펴보면 서울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7.2%, 대전 12.5%, 인천 9.6% 순으로 나타났다.
- 농지구입비, 농업관련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귀농·귀촌을 위해 준비한 자금은 평균 약 185백만 원으로 분석됨. 귀농인의 준비자금은 175백만 원으로 귀촌인 187백만 원보다 약 12백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귀농·귀촌인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61.7%가 농업이라고 응답했으나, 이 가운데 전업농은 28.1%에 불과함. 결국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귀농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귀농·귀촌인들의 기존 주민들과의 교류 실태를 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활발하다 31.8%, 매우 활발하다 13.1%, 별로 활발하지 않다 5.1%, 전혀 활발하지 않다 1.1% 순으로 나타났다.

## I. 머리말

-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농촌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이주 즉, 귀농<sup>1)</sup>·귀촌<sup>2)</sup>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에는 영농만을 위한 귀농이 아닌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베이비붐세대<sup>3)</sup>의 은퇴 후 농촌(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回歸) 현상도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직업과 나이, 경제력, 학력 등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생계 수단과 주거 공간을 농어촌 지역으로 옮기려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러한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은 과소화 해소 및 도시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 등을 통해 농촌경제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이에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단순한 인구유입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그들로 인해 침체되어 가는 우리의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넣어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귀농·귀촌자들의 정착실태에 대해 엄밀히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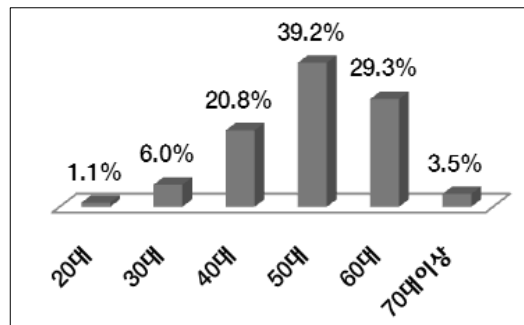
1) 본稿에서는 도시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되, 가계 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는 경우를 귀농이라 정의함  
2) 본稿에서는 도시민이 영농 목적이 아닌 노후휴양, 전원생활 등을 위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농업외 소득일 경우를 귀촌이라 정의함  
3) 戰後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며 1955년~1964년에 태어난 약 9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됨

- 본稿에서는 충남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자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 실태조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 충남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22일부터 동년 11월 23일까지 실시함
  - 총 446부를 배부 305부가 회수(68.4%)되었으며, 이 가운데 분석이 가능한 유효회답수는 283부(유효회답률 63.6%)임

## II. 귀농·귀촌 준비 실태

### 1. 응답자의 기본인적 사항

-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83명 가운데 남자가 228명(80.6%), 여자가 55명(19.4%)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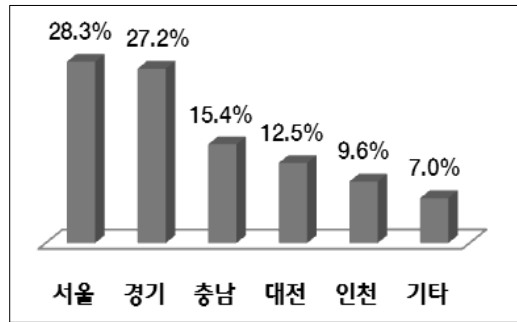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의 연령

- 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39.2%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9.3%, 40대 20.8%, 30대 6.0%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1.1%로 극히 낮은 비율을 보임. 5~60대의 중장년층이 전체의 68.5%를 차지하고 있다.

-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 27.2%, 전문대졸이 17.0%, 대학원졸이 13.0%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57.2%로 高학력 귀농귀촌자 비율도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귀농·귀촌자의 이주 前 거주지역(전출지)을 살펴보면 서울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7.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충남지역 내 타 시군으로부터 이주 15.4%, 대전 12.5%, 인천 9.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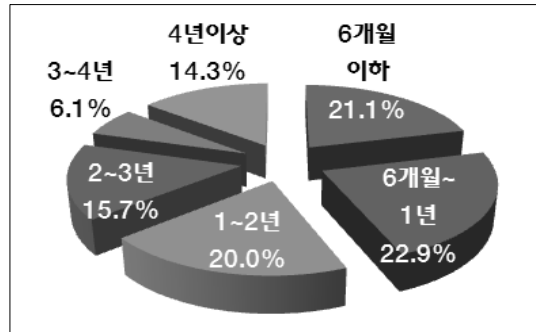
〈그림 2〉 이주 전 거주지역

- 충남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세대의 가족구성원수를 보면, 2인 가족이 전체의 39.1%로 가장 많았고 3인 가족 21.9%, 4인 가족 20.4%, 1인 가족 9.0% 순으로 나타났다.

## 2. 귀농·귀촌 준비 실태

### ◆ 귀농·귀촌 준비 기간

- 충남지역으로 귀농·귀촌하기까지 준비한 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1년이 2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림 3〉 귀농·귀촌 준비 기간

6개월 이하 21.1%, 1~2년이 20.0%, 2~3년 15.7%, 4년 이상 14.3% 순으로 나타났다.

- 준비기간이 1년 이하의 비율이 44.0%로 비교적 귀농·귀촌을 위한 준비과정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4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는 비율도 14.3%로 적지 않음

#### ◆ 귀농·귀촌을 위한 정보 획득 경로(복수응답)

- 귀농·귀촌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인터넷을 통해 획득하였다는 응답이 전체의 35.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각종 기관, 단체의 귀농·귀촌 교육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32.1%를 차지하였다.
  - 그 밖에 농촌에 사는 친지, 친구 등 지인을 통해서 27.9%, 주변사람을 통해서 27.1%, 신문, 방송, 서적 등을 통해서 16.1%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인터넷과 관련 기관(단체)에서의 교육과정이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한 관련 정보 제공과 귀농·귀촌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한편 전체 응답자의 14.3%는 특별히 정보를 획득하지 않고 귀농·귀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정보를 획득하지 않은 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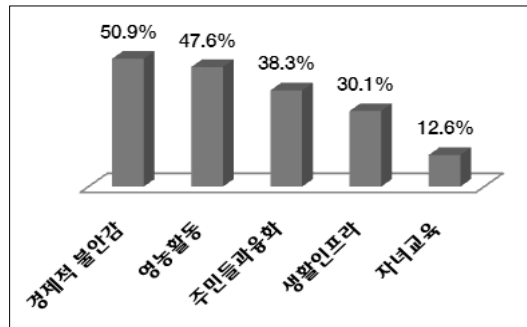
### ◆ 귀농·귀촌 준비 사항(복수응답)

- 귀농·귀촌하기 이전 준비사항을 알아보면 전체 응답수의 36.4%가 농업 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귀농교육을 받으면서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27.9%는 귀농·귀촌 예정지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 블로그, 카페, 동아리모임 등을 통한 정보 획득(22.5%), 귀농·귀촌 선배들과 교류를 통한 정보 획득(19.3%) 순으로 나타남
- '특별히 준비한 적이 없다' 는 응답도 20.0%로 비교적 많음

### ◆ 귀농·귀촌 준비과정상 염려사항(복수응답)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염려되었던 점으로는 경제적 불안감이 전체 응답자의 50.9%를 차지 안정적 소득 불확실에 대한 불안감이 귀농·귀촌자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농산물 생산, 판매 등 영농활동에 대한 두려움(47.6%), 의료, 복지, 기존마을주민들과의 교류, 융화의 어려움(38.3%), 문화, 교통 등 생활인프라 시설의 부족에 대한 불안감(30.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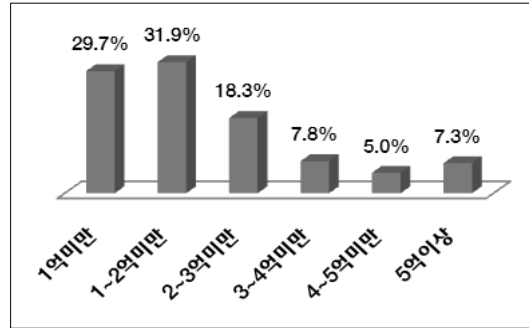
〈그림 4〉 귀농·귀촌 준비 애로사항(복수응답)

-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은 전체 응답자의 12.6%로 비교적 낮음. 이것은 귀농·귀촌자의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초·중학생의 자녀를 둔 가족이 적거나 자녀들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임



## ◆ 귀농·귀촌 준비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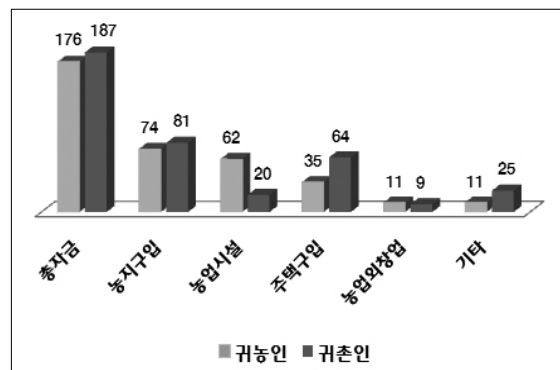
- 농지구입비, 농업관련 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귀농·귀촌을 위해 준비한 총자금은 평균 약 18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귀농·귀촌 준비 자금

- 귀농·귀촌 총 자금으로 1억 원 ~2억 원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미만이 29.7%, 2억 원~3억 원미만 18.3%, 3억 원~4억 원미만 7.8%, 5억 이상 7.3%, 4억 원~5억 원미만 5.0% 순으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의 약 61%가 총자금 2억 원미만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 준비자금을 살펴 보면 농지구입자금이 약 79.7백만 원(전체 비용의 43.0%)으로 가장 많이 소요되었으며, 주택구입자금 약 58.9백만 원(31.8%), 농업관련 시설자금 약 27.2백만 원 (14.7%), 농업외 창업자금 약 9.4백만 원(5.1%)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귀농·귀촌인 준비자금 비교(단위:백만원)

- 귀농인의 총 준비자금은 175.6백만원으로 귀촌인 187.2백만 원 보다 약 12백만 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귀농인의 세부항목별 준비자금을 살펴보면 농지구입자금이 74.2백만 원 (42.3%)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관련 시설자금도 61.5백만 원(35.0%)으로

나타나 농업을 위한 자금이 전체 준비자금의 7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귀촌인의 경우는 농지구입자금이 80.8백만 원(43.2%)으로 귀농인과 비슷하였으나 주택구입자금에 있어서는 64백만 원(34.2%)으로 귀농인의 35.2백만 원의 보다 약 2배가 많다는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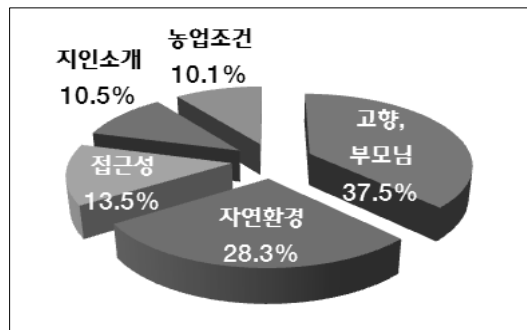
### Ⅲ. 귀농·귀촌 정착 상태

#### ◆ 귀농·귀촌 기간

- 충남지역으로 귀농·귀촌한 가구의 거주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전체응답자의 26.5%로 가장 많았으며 1~2년(20.0%), 5년 이상(19.3%), 2~3년(17.3%), 3~4년(9.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귀농·귀촌한 비율이 전체의 6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 귀농·귀촌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 ◆ 귀농·귀촌지를 선택한 이유

- 귀농·귀촌지역을 선택한 이유로서 고향이고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자연(농어촌)환경이 좋아서 28.3%, 수도권, 대도시와의 접근성



〈그림 7〉 귀농·귀촌지를 선택한 이유

이 좋아서 13.5%, 지인이나 친지로부터 소개, 권유가 10.5%, 농업조건이 좋아서 10.1% 순으로 나타났다.

#### ◆ 충남으로 귀농 · 귀촌한 목적

- 충남지역으로 귀농 · 귀촌한 목적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5.0%가 농촌(전원)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응답했으며,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20.2%), 직장 은퇴 후 노후휴양을 위해(11.9%), 인간다운 삶을 위해(10.8%), 농업외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10.8%) 순으로 나타났다.
- 그 밖에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6.9%), 본인 또는 가족의 취미생활을 위해(1.4%)라는 응답도 있음

#### ◆ 귀농 · 귀촌 전 직업

- 충남지역으로 귀농 · 귀촌하기 이전의 직업을 알아 본 결과,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24.5%, 공무원 7.0%, 상업 3.5%, 직업군인 3.1% 순으로 나타났다.
- 그 외 건축설계, 디자인, 목공,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직에 종사했던 걸로 파악됨

#### ◆ 귀농 · 귀촌 후 직업

- 충남지역으로 귀농 · 귀촌한 후 종사하는 직업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61.7%가 농업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전업농<sup>4)</sup>은 28.1%에 불과한 걸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전업농의 비율은 17.3%로 매우 낮다.

4) 전업농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를 말함. ① 가계소득에서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많을 경우, ② 경종농업의 경우 농지면적이 1.5ha 이상, ③ 농촌으로 이주한 목적이 영농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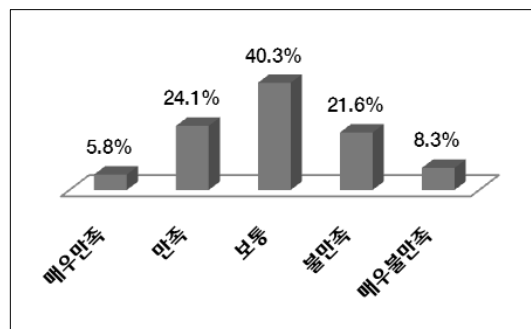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귀농·귀촌인의 10명 가운데 1명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12.9%)

#### ◆ 귀농·귀촌가구 가계소득 비율

- 충남지역 귀농·귀촌가구의 가계소득을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으로 나누어 보면 농업소득이 38.0%, 농업외소득이 62.0%로 농업외소득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귀농인(전업농)의 경우는 농업소득비율이 88.8%, 농업외소득 11.2%이며 귀촌인의 경우는 농업소득 25.4%, 농업외소득 74.6%로 나타남
- 가계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50%이상 비율은 30.8%이며 가계소득 전액이 농업소득인 경우는 17.9%에 불과함
-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10개 시·군 가운데 논산시만 유일하게 농업소득이 농업외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많은 시군은 논산시(53.0%), 홍성군(47.5%), 금산군(46.2%), 예산군(44.0%), 서산시(43.7%)임

#### ◆ 경제생활 만족도 및 연간소득

- 귀농·귀촌인들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40.3%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한다' 24.1%, '만족하지 않는다' 21.6%,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3%, '매우 만족한다' 5.8%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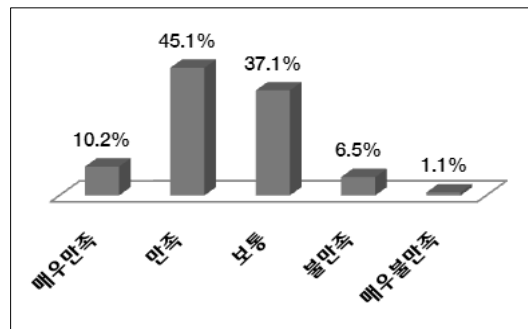
〈그림 8〉 경제생활 만족도

에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라는 비율과 불만족하다(불만족+매우 불만족)라는 비율이 29.9%로 똑같다.

- 연간 가계소득을 보면 1~2천만 원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2~3천만 원 22.2%, 1천만 원 이하 22.2%, 3~4천만 원 15.0%, 4천만 원 이상 14.3% 순으로 나타남. 가계소득 3천만 원 이하가 전체의 70.7%를 차지하고 있음

#### ◆ 농어촌생활 만족도

- 충남지역으로 귀농·귀촌한 자들은 지금의 농어촌생활에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다' 45.1%. '매우 만족하다' 10.2%로 '불만족' 6.5%, '매우 불만족'이 1.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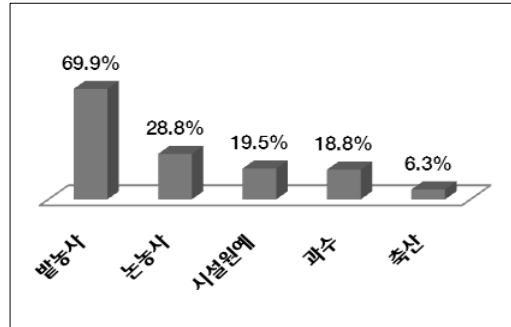
〈그림 9〉 농어촌생활 만족도

## IV. 귀농·귀촌인 영농 실태

#### ◆ 영농형태(복수응답)

- 충남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영농형태를 보면 밭농사가 69.6%로 가장 많으며 논농사 28.8%, 시설원예 19.5%, 과수 18.8%, 축산 6.3% 순으로 나타남.

- 귀농인의 경우 역시 밭농사가 69.9%로 가장 많으며 논농사 28.8%, 시설원에 19.5%, 과수 18.8%, 축산 6.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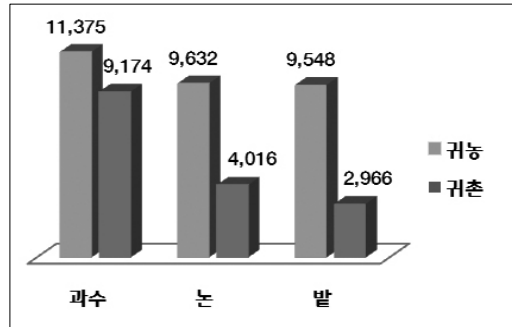


〈그림 10〉 영농형태(복수응답)

## ◆ 영농규모

- 귀농·귀촌인의 영농규모는 평균 8,665㎡이며, 과수면적의 경우 9,594㎡로 가장 넓으며 논면적 5,354㎡, 밭면적 4,146㎡로 나타났다.

- 귀농인의 경우 영농규모는 전체 평균의 2배가 가까운 16,100㎡이며, 과수면적 11,375㎡, 논면적 9,632㎡, 밭면적 9,548㎡로 나타남



〈그림 11〉 귀농·귀촌인 영농규모(㎡)

- 귀촌인의 경우 영농규모는 평균 6,960㎡이며, 과수면적 9,174㎡, 논면적 4,016㎡, 밭면적 2,966㎡로 나타남

- 소, 돼지, 닭 등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48농가로 전체의 16.9%에 불과함

## ◆ 농지소유 형태

- 귀농·귀촌인의 농지소유 형태를 보면 자가소유 비율이 66.0%로 임차비율 34.0%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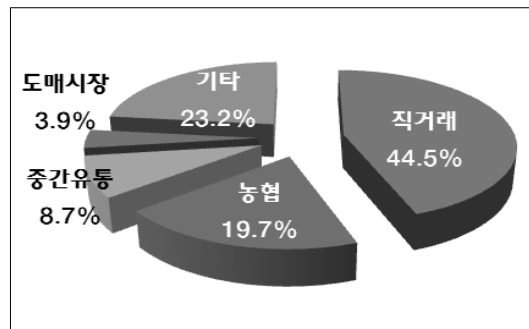
- 귀농인의 경우는 자가소유 비율이 43.5%로 전체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농업소득으로 가계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의 농지가 필요하기 때문임
- 한편 귀촌인의 경우 자가소유 비율은 71.0%임

#### ◆ 생산자 조직 가입 여부

- 품목별 생산자연합,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에 가입한 귀농·귀촌인은 28.4%에 불과하다.
- 귀농인의 경우는 과반이 넘는 52.4%가 생산자조직에 가입하고 있으나, 귀촌인의 경우는 가입률이 23.4%로 매우 낮음

#### ◆ 가공품 생산과 유통

- 귀농·귀촌인 가운데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품을 만들고 있는 비율은 14.3%로 매우 낮았으며 향후 가공품을 만들 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27.3%이다.
-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보면 직거래판매가 44.5%, 농협 출하 19.7%, 중간유통상인 8.7%, 도매시장 3.9%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 농산물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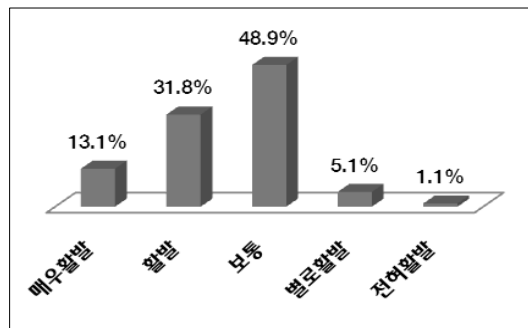
## V. 귀농·귀촌인 사회적 관계 실태

### ◆ 활동조직 및 사회적 역할

- 전체 응답자의 62.1%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결성된 마을총회,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작목반 등의 조직(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9%는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귀농인의 경우 85.7%가 가입하고 있지만 귀촌인의 경우 57.7%만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주민조직(단체)에 가입하였으며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등 조직(단체)내에서 책임 있는 역할(지위)을 맡고 있는 비율은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지역 내 조직에 가입은 하고 있으나 그 조직을 이끌고 가는 책임역할을 하기까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지역 내 교류

- 기존 주민들과의 교류 실태를 살펴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활발하다 31.8%, 매우 활발하다 13.1%, 별로 활발하지 않다 5.1%, 전혀 활발하지 않다 1.1% 순으로 대체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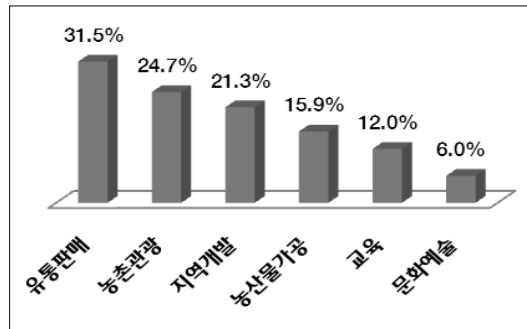
〈그림 13〉 지역주민과의 교류



- 귀농인의 경우는 기존 주민들과의 활발하게 교류(활발+매우 활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8%로 귀촌인의 39.6%에 비해 활발함
- 귀농·귀촌인들과의 교류 실태를 보면 보통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활발하다 29.2%, 매우 활발하다 14.4%로 상기의 기존 주민들과의 교류와 비슷한 현상을 보임

#### ◆ 귀농·귀촌인들의 사회적 공헌

- 귀농·귀촌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 경험, 재능 등을 농어촌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농산물 유통·판매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응답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시설 관리운영에 기여 24.7%, 지역개발사업에 기여 21.3%, 농산물 가공에 기여 15.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지역사회 공헌(복수응답)

유 악 열, hyyou@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041-840-1201

## 충남리포트 발간리스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 · 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 · 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 · 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 · 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 · 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 · 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 · 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 · 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 · 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 · 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 · 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 · 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 · 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 · 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 · 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 · 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 · 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 · 권영현	2010. 4. 5
2010-06	아 · 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 · 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 · 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 · 윤정미	2010. 6.21
2010-11	충남 귀농 · 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 · 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 · 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 · 이선희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 · 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홍성효	2011.11.30
2011-1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종수	2012.01.31
2012-02	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년 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 사회경제적 정책과 협동조합	송두범 · 김종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	전영노 · 백운성외	2012.08.10
2012-10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허남혁 · 정준	2012.08.16
2012-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윤정미	2012.09.20
2012-12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	정옥식	2012.10.31
2012-13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	사공정희	2012.11.28
2012-14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양중	2012.12.12
2013-01	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	홍성효 외	2013.02.21
2013-02	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	김양중	2013.03.07
2013-03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	송두범 외	2013.04.19
2013-04	에코유지엄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방안	여형범	2013.04.29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http://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